

- 요지:**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온갖 유형의 질식에서 너희를 구하려고 아버지가 왔다. 너희는 이제 이 슬픔의 오두막에서 슬픔이 없는 오두막으로 가고 있다. 너희들은 이 독의 강을 건너갈 것이다.
- 질문:** 너희들이 기억하며 앉아있을 때 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고,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것은 무엇이나?
- 대답:** 너희가 기억하며 앉을 때 소리와 소음은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지식에서의 장애다. 그러나 마야는 반드시 기억에 장애를 일으킨다. 마야가 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기억할 때다. 그녀는 여러 유형의 생각과 죄 되는 생각들을 불러온다. 그래서 바바가 이르는데, 자녀들아, 늘 조심해라! 마야에게 주먹으로 얻어맞는 일은 없게 해라. 너희에게 끝없는 행복을 주는, 온갖 관계의 사카린인 쉬브 바바를 지극한 사랑으로 기억해라. 기억하며 빠르게 달려라.
- 노래:** 오 밤의 나그네여, 지치지 마라! 동트는 목적지가 멀지 않다네.

음 산티.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들은 순례하고 있다. 보통의 경우에는 앉아 있는 자들은 순례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다. 이 순례는 참으로 경이롭다! 이것은 평화의 순례, 평화의 나라로 가는 순례다. 라반의 왕국에서 너희들은 숨이 막혀 죽는다. 사티야반 사비트리 이야기가 있는데 그녀가 어떻게 사티야반의 영혼을 죽음에서 도로 데려왔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사실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다. 반 사이클 동안은 죽음이 온다. 마지막에는 목이 졸린다. 그들은 해마다 자기들이 불에 태우는 라반이 적이라는 것을 모른다. 바바가 이르는데, 나는 너희를 슬픔의 오두막에서 꺼내어 질식이 없고 슬픔에서 자유로운 오두막으로 데려가려고 왔다. 여기에는 많은 유형의 질식이 있다. 부모로부터, 남편과 자녀들 등으로부터 목이 졸린다. 남편은 너희를 악덕 속에 가둔다. 아버지가 와서 너희를 이 모든 숨막힘에서 해방시켜서 새 세상으로 데려간다. 이제는 영혼의 날개가 부러져서 영혼들은 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기억의 순례 길에 머물 수 없다. 이것은 진정으로 지식의 요가로 하는 순례다. “만마나바브 (너희의 마음을 나에게 집중해라)”라고 쓰여 있다. 이것이 순례라는 뜻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라마가 원숭이 군대를 이끌고 다리를 지었다고 얘기한다. 원숭이들이 어떻게 다리를 놓을 수 있었겠느냐? 너희들의 기억의 순례로 다리가 놓아지고 있으며, 그것으로 너희는 독의 강을 건너간다. 아버지는 너희에게 이 강에서 수영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그는 뱀사공이다. 그는 너희를 독의 강 건너 쉬발라야로 데려간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로를 버리고 독을 마시겠는가?”라는 말이 있다. 지식은 감로라 불린다. 지식을 통해서 구원이 있다. 경전들은 지식이라고 불리지 않는다. 그것은 신봉의 도구들이다. 경전을 읽어도 황금시대는 올 수 없고, 그것을 통해서도 구원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것은 지식의 감로라 불리지 않으며, 그것은 신봉이다. 지식을 통해 처음에는 100%의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차츰 계속 낮아진다. 황금시대에도 타락이 있다는 말은 할 수 없다. 거기서는 타락에 대한 언급이 없다. 철시대에는 모든 이가 다 타락되어 있다. 오직 아버지 한 분만 모든 이에게 자비심을 가졌다는 것과 그가 슈리 슈리라고 불린다는 것을 너희들은 안다. 사람들은 그 다음에 모든 이에게 “슈리 슈리”라는 칭호를 붙여주었다. 신인들은 슈리 락쉬미와 나라얀, 슈리 라마와 시타처럼 “슈리”라고 언급된다. 그런 존재들을 슈리 (고결한)로 만드는 한 분은 슈리 슈리 (2중으로 고귀한)라고 불린다. 너희는 절대로 악덕에 탐닉하지 않겠다고 아버지에게 약속한다. 만일 약속한 후에 잘못을 저지른다면 아버지의 오른손인 다람라지도 역시 그와 함께 있다. 다람라지는 어느 누구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는 은밀하며, 지식도 은밀하고, 지위도 은밀하다. 너희에게 슈리마트를 주는 이가 인간일 수 없다는 것을 오직 너희 자녀들만 안다. 아버지는 프라자피타 브라마를 통해 자녀들을 창조한다. 프라자피타는 서를 리전에 존재할 수 없다. 그는 틀림없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지금 이때에 브라마가 브라민이라는 것을 너희 자녀들은 이해한다. 그는 미래에 주권을 받는다. 신인들은 불순한 세계에서 통치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낡은 세계의 파괴가 있어야 한다, 즉 파괴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아직은 시간이 약간 남아있다. 너희들의 새로운 나무의 묘목이 아직은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전에 너희들은, 당신은 어머니이며 아버지입니다... 라고 노래 부르곤 했었다. 너희들은 그들 모두의 앞에서 이 찬양을 노래로 불렀지만 그러면서도 너희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좋다, 브라마가 어떻게 어머니일 수 있는지 생각해봐라. 락쉬미와 나라얀은 그들 자신의 왕국을 가진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머니이며 아버지라고 불릴 수 없다. 그래서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이 실제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을 행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때다. 그 다음에 신봉의 길에서 그에 대한 찬양이 노래로 불릴 것이다. 그것에서도 그들이 “당신은 어머니이며 아버지입니다”라고 처음에 찬미가를 부르는 것은 쉬브 바바에게다. 그 다음 나중에 그들은 계속해서 락쉬미와 나라얀, 라마와 시타 등 모든 이에게 이 말을 한다. 그들은 지혜가 전혀 없다. 쉬브 바바는 사카린이다. 모든 인간은 사악한 길에서 계속 슬픔을 끼치는 반면, 나는 그것에 비해 모든 이에게 최대의 행복을 준다. 나는 공여자다. 나는 너희 자녀들에게, “자녀들아, 기억의 순례 길에 더 많이 머물며

자아각성의 원반을 돌리고 연꽃처럼 될수록 너희는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할 것이다”라는 슈리마트를 준다. 다른 누구도 이 장식품들의 의미를 설명할 수 없다. 오직 너희들만이 이 장식을 택한다. 그들은 비슈누에게 이 상징들을 주어왔다. 그들은 신인들에게 심지어 제3안까지 주어왔다. 사실 제3안을 받는 이들은 너희들이다. ‘트리네트리’와 ‘트리칼다르시’라는 말이 있다. 너희 영혼들은 지금 이때 지각에 이런 말의 의미를 담고 있다. 모든 것이 영혼의 지각 속에 머문다. 몸은 “나의 눈, 코, 귀”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몸은 나의 궁전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혼이다. 너희 안에 84생의 배역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너희 영혼들은 안다. 이런 것은 참으로 은밀한 내용이다. 영혼은 또 로켓이라고도 불린다. 영혼이 몸을 벗고 런던으로 가야 할 때, 그는 1초에 그렇게 할 것이다. 사람들은 너희가 아침에 출발하면 저녁에 거기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른 로켓들을 만들어왔다. 전에는 기선으로 3, 4개월이 걸렸다. 심지어 지금도 기선으로는 거의 한 달이 걸린다. 비행기로는 하루면 된다. 그러나 영혼들은 참으로 빠른 로켓이어서 1초에 어디든 도달할 수 있고, 아무도 볼 수 없다. 너희 영혼들은 모든 역할을 두루 다 가진다. 오케이, 지고의 영혼의 역할이 무엇이나? 동시대 이후로 나의 배역은 비전을 허락해주는 것이다. 누구든 사랑과 헌신으로 나를 기억하면 나는 그의 소망을 이루어준다. 지금 나의 역할은 지식을 주는 것이다. 그것은 불순한 자들을 순수하게 만드는 것이다. 나는 너희를 지식으로 충만한 주인, 마스터 신들, 신의 자녀들로 만든다. 지난 사이클에 노력했던 자들은 다시 그렇게 할 것이다. 너희가 지난 사이클에 여기 왔었다고 자녀인 너희들은 얘기한다. 너희들은 이제 다시 한 번 너희의 유산을 차지하고 있다. 누구에게서 차지하느냐?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분에게서 차지한다. 사라스와티는 모든 이의 어머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이 브라마다. 이 사람에게는 어머니가 없다. 쉬브 바바가 친히 이르는데, 너는 나의 아내다. 그래서 나는 “남편을 놔두고 어떻게 나만 먹을 수 있겠는가?”라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쉬브 바바와 나는 둘이 함께 먹는다. 나에게서 그 도취감이 있다. 바바가 너희를 그 자신에게 약혼시키려고 중계자로 왔다는 말을 너희들 스스로 한다. 슈리마트를 따름으로써 너희는 모든 이가 신에게 약혼할 수 있게 해준다. 아버지는 펀디트들이 너희를 묶어준 악덕의 굴레를 무효화시킨다. 아버지가 이르는데, 지식의 장작더미 위에 앉아라, 그러면 너희가 아름다워질 것이다. 너희는 어째서 정욕의 장작더미 위에 앉아서 얼굴을 더럽히느냐? 너희들은 ‘시암 순다르’라는 말의 뜻을 안다. 슈리 크리슈나는 아름다웠지만, 그마저도 지금은 추하다. 아버지가 이제 와서 너희들에게 그 스스로를 소개했다. 너희들은 정화자, 신 아버지의 학생들이다. 이것은 학교다. 학교에서는 공부한다. 너희들은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영적 집회에서는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거기서 너희는 그저 기타나 그란트를 듣기만 한 다음에 집에 간다. 거기서는 아무도 너희에게 순수해지라거나 순례를 가라고 하지 않는다. 너희가 더 발전함에 따라서 그런 욕신의 순례들은 다 끝날 것이다. 눈이 오거나 사고가 일어난다면 아무도 가지 않을 텐데, 그에 반하여 너희들의 순례는 더 속도를 낼 것이다. 우리들의 순례는 쉬발라야로 가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쉬바의 나라 쉬발라야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는 쉬바가 세운 천국의 나라로 갈 것이다. 쉬브 바바가 해방과 삶 속의 해방, 둘 다 주기 때문에 쉬바의 나라와 비슈누의 나라, 양쪽 다 쉬발라야라고 불린다. 그러므로 쉬브 바바는 황금시대의 왕조를 세운다. 앗차.

기억에는 소음의 장애가 있을 수 없다. 소음이 방해를 일으키는 것은 지식을 귀담아듣는 데서다. 사람들은 “조용히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기억에 방해가 생길 것입니다”라고 한다. 그러나 소음이 요가에는 방해를 일으키지 않는다. 장애를 만드는 것은 마야다. 너희 자녀들은 마야에 맞서 싸우고 있다. 너희 자녀들은 전쟁터에서 결코 패배당하지 말아야 된다. 마야는 계속 너희에게 주먹을 날릴 것이다. 마야가 너희 코를 때리면 너희들은 넘어진다. 그 다음에 너희들은 일어나고, 그녀는 다시 너희의 코를 강타해서 너희는 또다시 쓰러진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이르는데, 마야는 화와 정욕으로 너희에게 펀치를 먹인다. 너희들은 이것에 매우, 매우 조심하며 지내야 한다. 너희 자신이 그녀에게 강타 당하게 놔두지 마라. 앗차.

가장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오랫동안 잃었다가 이제 다시 찾은 자녀들에게,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밥다다가 사랑과 기억과 아침인사를 보낸다.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자녀들에게 나마스테.

실천 요지:

1. 지식의 장식품들을 전부 다 선택해서 자아각성의 원반을 돌리는 자, 트리네트리, 트리칼다르시가 되어라, 즉 마스터 신이 되어라.
2. 다람라지인 아버지의 오른손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 어떤 죄 되는 행위도 행하지 마라. 순수해지겠다고 약속했으니 악덕에 탐닉하지 마라.

축복: 높은 행운을 가진 자가 되어 브라민 생의 행복이라는 자양분을 끊임없이 먹고 남들에게도 줘라. 우리들은 세계의 주인인 분의 자녀들이며 주인들이다. 신이 주는 이 도취감과 행복 속에 변함없이 머물러 있어라. 와 나의 고귀한 행운, 나의 고귀한 운명! 끊임없이 이 행복의 그네를 계속해서 타라. 너희는 끊임없이 행복의 행운을 가지고 또 너희는 행복이라는 자양분을 먹으며 남들에게도 준다. 너희는 남들에게 행복이라는 위대한 기부를 해서 그들도 역시 행운을 갖게 만든다. 너희들의 삶 자체가 행복이다. 행복하게 머무는 것이 사는 것이다. 이것이 브라민 생의 고귀한 축복이다.

솔로건: 솔로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관대해져라, 그러면 너희가 즐거움을 계속 경험할 것이다.

1957 년 1 월 23 일자 : 마테슈와리의 더 없이 귀중한 말씀

신이 한 분 뿐이라는 것은 세상 전체가 다 알고 있고 일부는 신을 힘 그 자체라고 여깁니다. 일부는 그가 자연 (쿠드라트)이라고 얘기합니다. 본질적으로 사람들은 신이 이런저런 형태라고 믿는 것이지요. 그들이 뭘 믿든 그 사물은 존재할 텐데, 그래서 그것에 이름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의 수만큼 신에 대한 견해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비록 그 각각은 한 가지일 뿐이지만 말입니다. 대개 사람들의 의견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부는 신이 편재한다고 합니다. 일부는 브람 원소가 어디에나 있다고, 모든 곳에는 단지 브람 원소만 있다고 얘기합니다. 일부는 말하기를 신은 진리이고 마야는 헛것이라고 합니다. 일부는 신은 없으며 오직 자연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신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많은 의견들 중 일부입니다. 그들은 세계가 물질이며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세계를 믿지만 세계를 창조하신 신, 주인은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수만큼이나 의견이 많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의견들에 대해 직접 와서 결정을 내려주시는 분은 신입니다. 신이 오셔서 이 세상에 대해 결정하십니다, 다시 말해 오직 모든 힘을 다 가진 분만이 그의 창조물에 대해 광범위하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들에게 창조주에 대해 소개해주시고 그는 또 우리들에게 그의 창조물도 역시 소개시켜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들이 영혼이라는 증거가 뭘니까?”라고까지 묻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바로 그 신의 자녀인 영혼이라고 얘기하므로 그렇다면 이것은 당신 스스로 자문해볼 일입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보내는 동안 내가 계속 “나, 나”라고 할 때 그것은 무슨 힘이고, 또 우리가 기억하는 그 한 분은 우리들에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을 기억할 때 그것은 우리가 그 분에게서 틀림없이 뭔가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 성취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매 순간 그를 기억할 때뿐입니다. 보세요, 인간들이 무엇을 하든 그들은 반드시 마음속에 이런저런 순수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는 행복을, 다른 일부는 평화를 바라고, 그래서 어떤 소망이 솟아날 때마다 반드시 받을 사람과 그 소망을 이루어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틀림없이 주시는 분일 텐데 바로 그래서 그가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제 그분이 누구인가 하는 중요한 의미를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말하고 있는 힘은 영혼인 나, 한 점 빛 같은 형태를 가진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육신을 떠나면 그 빛은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비록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에 물리적인 형태가 없다는 것은 증명되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그 영혼이 몸을 이미 떠났다는 것을 틀림없이 인식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저 영혼, 빛의 형태인 영혼이라고만 부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창조하는 분인 신도 역시 영혼들과 같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이가 어떠하든 그가 창조하는 것도 역시 뭐든 똑같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째서 지고의 영혼에 대해서 그가 영혼인 우리들에 비해 지고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이것은 그에게는 마야의 영향이 없는 반면 영혼인 우리들은 탄생과 죽음의 사이클에 들어가는 탓에 마야에게 반드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영혼들과 지고의 영혼과의 다른 점입니다. 앗차.